

# 군산시, 일자리 창출 신규 공모 선정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군산 산단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등 2건 새만금 산단과 국가·일반 산단 간 인력 수급·기업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총 2건에 선정되어 도비 4억4,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20일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표·제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군산시의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 특구 지역 내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조

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 조성지역으로 독립된 경제권역이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 전략, 실행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력 확보가 최대 숙제이다.

시는 적기의 인력 수급과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안을 세웠다.

센터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기업의 숙련 수준별 인력 수요를 사전 진단하여 고용서비스 제공 적기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은 ‘군산시일자리정보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외 산업단지 기업(조선업, 자동차업, 석유 화학업체(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대상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1:1 맞춤형 상담 △구직 역량 강화 특강 △구인 Search Day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인력 배분 최적화 △군형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2025년 정책자문단 발대식 개최

###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 주요 정책 제안·자문역할 수행

군산시가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 발대식을 통해 시정 싱크탱크인 군산시 정책자문단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2019년 전문가와 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해오던 ‘군산 발전협의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한 시정 자문 조직이다. 2020년 제1기, 2023년 제2기에 이어 올해 제3기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다.

‘2025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보건복지, 농업농촌, 기타 융복합의 6대 분과로 운영되며 지역 대학교수, 기업·기관 대표 등 30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자문단은 ‘시장의 주요 사업 및 정책수립, 시장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시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발대식에서는 그간 정책



자문단의 운영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군산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2025 국책사업발굴단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도 약속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기후 위기, 인구소멸·지방소멸 등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정에 정책자문단의 통찰과 해안이 담긴 자문이 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많은 발전적 제안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신속집행 총력

### 선금 지급 계약금액 최대 100%까지 기성금 중간 정산 확대 입찰·계약·공사이행보증금 인하로 업체 부담 완화 효과

익산시가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보증금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선금 지급 기준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완화하고, 기성금 지급방식도 기존 30

일 간격에서 중간 정산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아울러 보증금 인하도 진행돼 입찰보증금은 기존 5%에서 2.5%로 낮아지고, 계약보증금도 10%에서 5%로 완화된다. 공사이행보증금은 기존 40%에서 20%로 줄여 지역 업체의 계약 체결 부담을 줄인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공공조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 집행과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방 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 집행, 착한 소비 캠페인 등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미식 관광도시 도약 방안 모색

### ‘향토음식심의·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

익산시가 미식 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석 부시장 주재로 미식 산업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향토음식심의·음식개선추진위원회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주)하림, 향토 식재료 등 다양한 미식 산업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표 음식·맛집 개발을 비롯해 미식산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6차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 음식·맛집 발굴 및 육성 △대대립 맛집·향토음식점 발전 방안 △익산 미식산업의 케이(K)-푸드와 △미식 문화 여행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 동력 발굴 ‘머리 맞대’

###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장·대학 산학협력단장 간담회 진행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와 관계 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20일 열린 간담회에는 김임준 시장을 비롯해 플라스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12개 혁신·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사업 초기 수요 둔화(Chasm)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보고, 다양한 주제로 군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스마 통합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 △중고 굴착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제조 플랫폼 구축 △친

환경 유무인 운송수단(모빌리티) 제조 혁신지원센터 구축 △합정성능개량 산업단지 구축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 △이차전지 제조 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다방면으로 논의됐다.

간담회 후 군산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을 정리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들과 함께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 ‘우수상’

군산시는 ‘2025년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며, 지역 안전 기반 시설로의 CCTV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기존 통합관제센터 업무의 경직성을 탈피한 운영개선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건의 우수사례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합동심사단에서 1차 평가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2025년 CCTV 통합관제 콘퍼런스 행사에서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였

다.

군산시는 창의·융합성 분야로 ‘방범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와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이라는 우수사례를 접수해 1차 심사를 통과하였고, 2차 발표심사에서 우수상을 최종 수상하게 되었다.

군산시 발표자로 나선 스마트도시과 조기형 주무관은 “통합관제 CCTV 운영의 효율성 및 관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외 발생시 자동으로 탐지하여 관제요원이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해져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